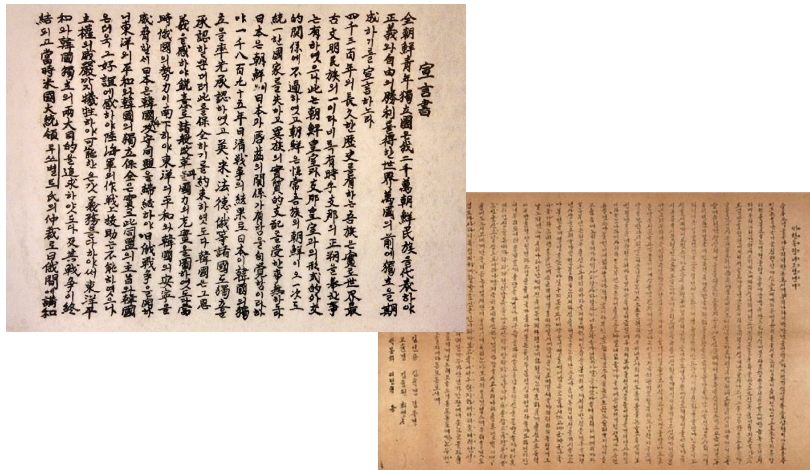


2.8 독립선언과 항일여성

2·8 독립선언서



2019년 1월 18일(금) 14:00~16: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최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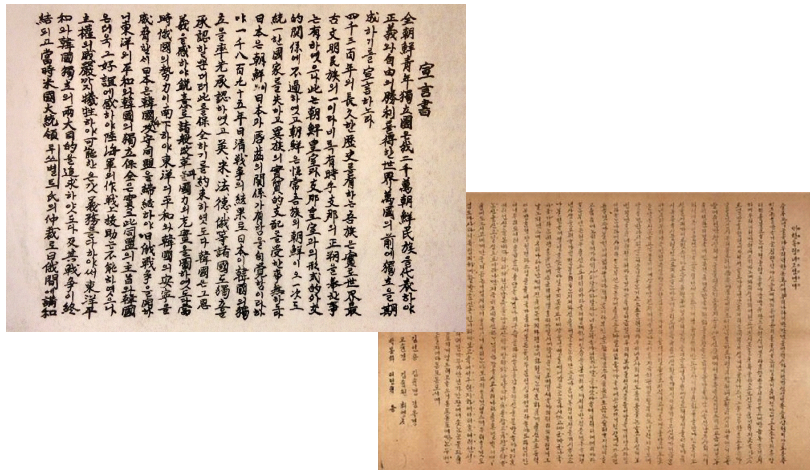
후원  국가보훈처

 항단연
(사)항일독립지사선양단체연합

2.8독립선언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2.8 독립선언과 항일여성

2·8 독립선언서



2019년 1월 18일(금) 14:00~16: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최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후원  국가보훈처

 항단연
(사)항일독립지사선양단체연합

2.8독립선언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인 사 말 씀

2.8 독립선언과 3.1 혁명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의미 있는 사업에 이해를 높이고자 '2.8 독립선언과 항일여성'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8 독립선언과 3.1 혁명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보여준 그 활동들을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 학술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8 독립선언과 당시 독립운동을 크게 보면 청년학생들의 민족해방운동이었음을 보여주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재일여성유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일조선유학생들의 그 당시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식과 실천을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 그 시대의 여성들의 독립운동도 열렬함을 나타냈었습니다. 특별히 3.1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2.8 독립선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자고 설득한 여학생 황에스터의 연설에 감화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기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은 2.8 독립선언에 재일 여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동기와 의의를 기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수색에서 독립운동이라는 글이 하나만 나와도 잡혀가서 목쓸 고문을 당하던 시대에 그 독립문서를 가지고 귀국하여 전국을 다니며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설득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한 것은 대단한 영웅적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신을 기리고 2.8 독립선언과 3.1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식에서 2.8 독립과 3.1 혁명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질문에 이분들이 역사 정의를 위하여 싸운 희생적인 삶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천해야만 한다는 의지의 표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투쟁하신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릴 수 있도록 이 세미나가 그 근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세미나에서 이들의 투혼과 가치가 문혀 가려져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로 나오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자랑스러운 오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분들의 희생적인 삶을 기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긍지와 자부심이 되어 1700만 촛불 혁명의 부리는 2.8과 3.1 혁명에 있었음을 우리의 긍지요 자부심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 훌륭한 발표자료를 마련하신 본회 기획위원장이신 신영숙 위원장을 비롯하여 세미나에 기꺼이 함께 해주신 정현주 님, 신주백 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 1. 18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김희선 드림

목 차

발 표 문

「2.8독립선언과 항일여성 -재일조선여자유학생을 중심으로-」	05
신 영 속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토 론 문

I. 정 현 주 (사)역사·여성·미래 공동대표	27
II. 신 주 백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31

발 표 문

2.8독립선언과 항일여성

-재일조선여자유학생을 중심으로-

신 영 속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1. 머리말

2. 2.8독립운동과 독립선언

- 1) 재일조선유학생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 2) 조선독립청년단의 2.8독립운동
- 3) 2.8독립선언의 내용과 의의

3. 재일조선여자유학생의 2.8독립선언

- 1) 학흥회(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와 여자계
- 2) 김마리아
- 3) 황에스터
- 4) 유영준, 나혜석 등

4. 나오며

2.8독립선언과 항일여성

-재일조선여자유학생을 중심으로-

신 영 속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개 요

◆ 본고의 목적

1919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조선유학생들이 뜻을 모아 거행한 2.8독립선언과 독립운동은 당시 청년학생에 의한 민족 해방운동이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여자유학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민족의 일원임을 천명하고 실행에 나섰다. 이같은 청년운동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3.1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과 의미, 그 시대정신을 되새겨보려고 한다. 특히 재일조선 여자유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여성과 사회운동, 미투 위드 유 운동, 또는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운동과 대비하여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 내용

1919년 1월,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1918년 12월 한국대표를 파견한다는 사실이 도쿄 유학생들에게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재일본 한국유학생들은 1918년 12월 말 망년회와 1919년 1월 초 웅변대회 등을 개최,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일본정부와 귀족원, 중의원은 물론 세계 각국 대사·공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월 8일, 조선독립청년단의 이름으로 <2·8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한 달 이상 독립운동을 도쿄에서 펼쳤다. 이에 김마리아, 황에스터 등 여자유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여학생들은 선언서를 휴대하고 국내에 들어와 여성들에게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큰 자극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성실히 하였으며, 3·1혁명에의 여성 참여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2.8독립운동을 준비하는 학우회에서 당시 여자유학생들은 “독립을 갈망하는 마음에 남녀가 어찌 다르겠느냐, 수레는 한쪽 바퀴만으로는 달리지 못 한다”고 토로한 황신덕의 열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자유학생들은 남녀 동등한 자격으로 독립운동, 사회 정치참여 등을 주장하며, 마침내 3.1혁명과 임정의 참여 여성으로 성장, 발전하는 확고한 디딤돌(총 유학생의 10% 정도)이 된 것이다. 남녀 동등한 국민 된 자격(사회적 평등권)을 선언한 것은 어쩌면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후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교사와 여학생 등 지식엘리트(신여성) 중심에서 1919년 전국적이고도 거족적인 3.1혁명을 기점으로 일반 대중 여성들에게로, 참여의 폭을 대거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임정 초기 활동한 여성 30여명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여성독립운동가의 증가와 성장을 이루었으며, 1940년대에는 광복군과 의용대로 역시 노선을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1945년 광복 때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1. 머리말

1919년 3.1혁명은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같은 전국적이고도 거족적인 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갑작스런 이변이나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직전인 1919년 2월 8일에 일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쿄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인 청년학생들이 2.8독립운동과 독립선언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일으킨 덕분이었다. 그것 역시 청년유학생들의 사전 준비 없이 일어난 거사는 결코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제국 말 기울어져 가는 국가의 위기에 맞서 열성적인 항쟁을 전개한 것은 수없이 많았다. 1890년대 의병전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서며

105인 신민회를 비롯한 비밀결사운동, 국채보상운동 등등, 조국의 국권을 회복하고 쇠해가는 민족을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은 안중근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암살이라는 하얼빈 쾌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1910년대의 폭압정치 앞에서 잠시 주춤하던 투쟁이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른 파리강화회의를 앞두고 민족들의 자각 의식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였다. 특히 지식 청년들의 자유와 평등, 민족해방, 사회해방에의 욕구와 열망은 불붙기 시작했다. 그것은 압제의 본국인 일본에 유학 간 조선인 청년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바람이 일본 사회에도 일정한 자극을 준 것도 놓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세계사적 사조는 유학생, 지식인 청년들에게 민족해방에 대한 열정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싹트고 자라 사회적인 사명감으로 응집되기에 충분했다.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본고에서 2.8독립선언과 청년운동, 여성운동을 통하여 3.1혁명에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특히 재일조선여자유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여성과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2. 2.8독립선언과 독립운동

1) 재일조선유학생친목회(학우회)

일본유학은 1904년부터 본격화하였다. 국운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민간 주도의 근대 학문을 공부하기 위하여 사비를 들여간 유학생들의 반일감정은 강했다. 서울, 평양(평안도) 출신이 많았는데, 1910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평균 500-600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법정, 경제, 사회과의 전공을 택하였다. 반면 관비유학생의 경우에는 총독부의 의도에 따라 농림, 수산, 의학, 상공업 분야 등에 다수가 있었다. 어쨌든 유학생이 1917년 말 총 589명으로, 전체 재일조선인의 4%를 차지하였고, 1918년 말에는 유학생 총 769명 중 동경에 642명이나 있었다. 도쿄가 유학생 활동의 중심지이자, 반일 투쟁의 근거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1919년에는 366명

중 310명이 동경에 거주하였다. 일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3·1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한 한국인 총수는 491명, 그중 유학생이 359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바로 3.1혁명으로 대거 귀국한 일시적 현상으로 다시 1920년 이후 급증하였다. 당시 유학생들은 초기에는 학업에 열중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족해방운동, 사회주의 등에 경도되어 간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일제의 요시찰 인물 중에는 학생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종교로는 기독교였다고 한다.

1913년 가을 당시 350여명 유학생들이 기존의 7개 단체를 대동단결의 뜻으로 조선유학생 학우회를 조직하고, 1914년 4월 기관지 학지광을 창간하였다. 기관지 학지광은 1914년 4월에 창간되어 1930년 12월 통권 30호로 종간되었으며, 연2회 발행되었다. 초기 발행인은 김병로·최팔용 등이다. 이후 편집 겸 발행인은 최팔용·신익희·최원순 등으로 바뀌었다. 집필 자로는 이광수·현상윤·김억·최승구 등이 참여했다. 이 잡지에 실린 논설은 대부분 망국의 울분을 토로하고 국민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조직적인 활동 속에 1918년 말 토론회, 웅변대회 등을 거치며 2.8 독립운동과 선언서를 준비하게 되었다. 학지광에 나혜석 등 여자유학생 글도 게재되었으나, 어디까지나 남자 중심의 유학생회에서 여자는 주변적 부분 참여에 그치고 있었다.

2) 조선독립청년단의 2.8독립운동

1919년 1월 18일부터 열리는 파리 강화회의에 재미 한국인 이승만·민찬호·정한경이 미국 월슨 대통령이 1918년 1월 제시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1918년 12월 한국대표로 파견한다는 사실이 고베[神戸]의 <저팬 애드버타이저 The Japan Advertiser>의 보도를 통해 일본 유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보도를 접한 재일유학생들 가운데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고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의사를 파리 강화회의에 반영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재일본 한국유학생들은 1918년 12월 29일 유학생 학우회의 망년회와 12월 30일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동서통합웅변대회에서 한국독립문제를 의제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조국독립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19년 1월 6일 한국유학생들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구체적 운동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위원으로 최팔용·서춘·백관수·이종근·김상덕·전영택·김도연·윤창석·송계백·최근우 등 10명을 선출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립선언을 일본정부와 귀족원, 중의원은 물론 각국 대사·공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1월 7일 200명의 회중에게 보고,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 이 무렵 상해의 신한청년당에서 보낸 조용은과 장덕수가 합세하여 유학생들의 궤기를 촉구하였으며, 뒤이어 이광수가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게 되었다. 이들은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와세다대학에 유학 중이던 송계백을 국내에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자금을 모집하며, 선언서 인쇄활자 등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송계백은 <2·8독립선언서> 원고를 비밀리에 휴대하고 국내에 들어와 현상윤·최린 등을 만났다. 이것이 국내 지사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으며, 3·1혁명 준비를 본격화시키게 되었다.

마침내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 <선언서>와 <결의문>·<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귀족원과 중의원, 조선총독부, 동경 및 일본 각지 신문사와 잡지사, 여러 학자들에게 우송하고 오후 2시 유학생학우회 선거를 빌미로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약 600명이 모여 유학생 대회를 열었다. 최팔용의 사회로 대회의 명칭을 조선독립청년단 대회로 바꾸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선언서>를 낭독하고, 4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장내에는 독립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이광수는 이미 2월 5일 영국·미국·프랑스에 영문으로 된 독립선언을 타전하였고, 도쿄에서의 2·8독립선언과 보조를 맞추어 2월 8일 <차이나 프레스 The China Press>·<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스 The North China Daily News>에 독립선언서의 게재를 부탁해, 9일과 10일에 각각 게재되었다. 또한 장덕수는 상하이에서, 여운홍은 미국에서 도쿄에 잠입하여 중국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동향을 설명하고 본국과 해외동포들이 일치해서 도쿄에서의 독립선언에 호응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당일 오후 3, 4시 니시칸다(西神田) 경찰서의 경찰에 의해 포위된 집회장은 곧 경찰과 유학생들간에 일대 난투극이 벌어졌으며, 미리 상해로 탈출한 이광수를 제외한 임시실행위원 10명과 함께 27명이 검속되었다. 그 중 최팔용 등 9명은 금고 1년에서 7개월 15일의 형에 처해졌다. 당초 일제는 이 사건에 내란죄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법조계에서 명망 있는 하나이 다쿠조(花井卓藏) 등 여러 변호사들이 무료변론을 자청하고 나서 “민족자결의 사조가 팽창함에 비추어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니 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등으로

변론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량의 출판법 위반죄가 적용되었다.

지도부가 검속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뒤 2월 12일 일본 의회에 독립을 청원하기 위하여 1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히비야(日比谷)공원 음악당 근처에 모였다. 2·8독립 선언에 이어 독립을 청원할 대표자로서 이달(李達)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독립에 관한 연설과 독립선언서를 다시 발표하려 했으나, 이달 등 13명이 붙잡혀 해산되고 말았다. 2월 23일에는 <독립선언서>와 <국민대회청원서>를 일본의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자 <조선청년독립단 국민대회촉진부 취지서>를 인쇄하여 히비야 공원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인쇄물이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변희용·강종찬·최승만·장인환 등이 구금되었다. 그래도 오후 2시 약 150명의 유학생이 히비야공원에 모여 있었고, 주도자 중 구금되지 않은 최재우가 나와 이 유인물을 배포하며 다시 한 번 시위를 기도하였으나, 곧 일경에 의해 집회는 해산되고 최재우도 체포되었다.

한편 3·1혁명이 일어나자, 도쿄 유학생들은 3월 9일 재동경조선청년독립단동맹휴교촉진부를 결성해 유학생들에게 학교를 동맹휴학하고 귀국하여 본국의 만세시위운동에 합류하기를 호소하는 격문을 띄웠다. 3월 10~11일 변치덕·정근모·이재훈 등은 태극기 130여 개를 만들어 최팔용 등의 공판일에 모인 유학생들에게 배포하여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했으나,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어 실패했다. 2월 초부터 3월에 이르도록 한 달 이상 유학생들은 거사 실패를 거듭하고 체포와 구금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3) 2.8독립선언서의 내용과 의의

2·8독립선언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3·1독립선언서가 비교적 일제의 도의심에 호소하고 있는 데 비해 보다 분석적이고 고발적이며 투쟁적·대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8독립선언서>에서 유학생 대표들은 첫째 한국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역사상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음을 천명하고, 둘째 사기와 폭력에 의한 국권탈취의 불법성과 침략정책을 고발하였으며, 셋째 10년간의 식민지 통치가 상호이해에 상반됨과 한국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넷째 동양평화의 견지에서 볼 때 소련이나 중국이 군국주의적 야심이 없으므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구실이 없으며, 다섯째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식민지 통치를 계속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일본에 대해

혈전을 할 것임을 밝히고, 여섯째 우리 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신국가를 건설하여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에 공헌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여기에는 세계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이 한국의 합병을 승인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도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하는 당시 유학생들의 역사를 보는 올곧은 혜안을 드러내 보였다.

또한 4개항의 결의문은 첫째 한일의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에서 독립을 주장하며, 둘째 일본 의회와 정부는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셋째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각국 대사가 본국에 이 의사를 전달할 것과 우리 대표자 3인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할 것을 밝혔으며, 넷째 이러한 요구가 실패할 때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전주곡으로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즉 최남선이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참고가 되었고, 국내의 민족지도자들과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져 바로 3·1혁명의 또 하나의 발화점이 되었던 것이다.

3. 조선여자유학생회(학흥회)의 2.8독립운동

1) 학흥회(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와 여자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2.8독립운동을 살펴보자면 먼저 여자유학생들의 조직과 활동을 봐야 한다. 1917년 9월부터 1918년 봄까지 동경여자유학생 수는 9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는 총 회원 수 40여명에 이른다.

동회는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여학생 김필례, 김정화(金貞和)·나혜석, 김숙경 등 10여명이 1915년 4월 3일 여학생간의 친목과 지식의 계발 및 국내 여성들을 계몽,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5년 4월에 조직한 단체이다. 처음에는 동경 조선유학생회 간부인 전영택·이광수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남자유학생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였으나, 1918년 9월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중요활동으로는 여성들의 의식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잡지 『여자계(女子界)』를 간행하였다. 또한 1년에 3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임원개선과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시사에 관한 각종 사항과 여성들의 의식을 높이는 논의를 하였다. 사업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였고, 2·8독립선언 당시에는 이를 지원하여 총 125원의 기부금을 내고 참여하였다. 1919년 10월 23일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25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회장에 손정규, 총무에 유영준, 서기에 황신타·현덕신, 회계에 성의경 등이 선출되었다. 회원은 1920년 6월에 약 30명이었다.

회원들은 구국적 차원에서 여자 교육을 논하고 여자의 동등한 인간적 권리와 사회 참여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회장 김필레를 비롯하여 이들은 스웨덴의 엘렌케이 같은 이상적 부인의 삶을 창조하지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1916년 봄 김필레가 귀국한 후 김마리아가 임시회장을 맡았다. 1917년 10월 친목회 임시총회에 회원 전원 참석. 김마리아 회장, 총무 나혜석, 서기 정자영 등이 선출되고, 여자계 편집부장에 김덕성, 부원에 황에스터, 나혜석, 허영숙. 1918년 3월 졸업한 김덕성 귀국한 뒤 황에스터가 후임자가 되었다.

김마리아 회장이 한 사업 중 하나가 회지 여자계 창간이었다. 1917년 봄에 여자계 1호가 발행되었으며, 6월 말에는 50여쪽에 이르는 2호도 나왔다. 애초에 이 잡지는 평양 송의여학교 동창회 잡지 발행을 위한 당국의 인가를 친목회에 양보하고, 지원해줌으로써 가능했다. 1918년 3월에 가서야 2호가 재발행되고, 반포되었다. 편집 찬조인 이광수, 전영택 외 남성 필자 다수가 동참하는 등, 남성의 지원과 교류도 활발했다.

1918년 말과 1919년 1월, 학우회 주최 망년회, 연말옹변대회, 신년옹변대회에 김마리아, 황에스터는 모두 참석하였다. 당시 남학생들은 여성에게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나 황에스터의 열변 후 남녀 함께 논의 2.8독립선언운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조선독립청년단'을 조직하고, 여자계 편집을 돕던 이광수에게 독립선언서 결의문 및 민족대회 소집청원서를 작성케 하여 일문, 영문 번역도 의뢰하였다. 송계백이 국내에 파견돼, 자금을 모으도록 하였을 때, 회장 김마리아는 30원, 단체로 125원의 기부금을 헌납하는 등 실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오후 2시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400여 유학생이 운집했을 때, 여학생은 김마리아 황에스터 노덕신 유영준 박정자, 최제숙 등 다수의 여학생이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서에 명기된 조선독립청년단 대표 11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이에 김마리아 등은 당시 여성의 처지에 대해 새삼스럽게 다시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 김마리아(1891?~1944)

본관은 광산. 황해도 장연 출신. 아버지는 김윤방, 어머니는 김몽은이다. 아버지는 한학자로, 서상륜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1895년 아버지가 세운 소래초등학교에 입학하여 4년 만에 졸업하고, 집에서 길쌈 등을 하며 한문공부에 열중하였다. 1895년에 아버지를, 1904년에 어머니를 여읜 후 대학공부까지 하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1905년 서울로 올라와 노백린·유동열·이동휘 등 애국지사들의 출입이 잦은 삼촌 김필순의 집에서 공부를 계속하였다.

1906년 이화학당에 입학했다가 교과 관계로 곧 연동여학교(지금의 정신여자중학교)로 전학, 1910년에 졸업하였다. 그 뒤 3년 동안 광주 수피아여학교에서 교사를 지냈고, 1913년 모교인 정신여학교로 전근한 뒤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하였다. 일본 히로시마[廣島]의 긴조(錦城)여학교와 히로시마여학교에서 1년간 일어와 영어를 수학한 뒤, 1915년 동경여자학원 대학예비과에 입학하였다. 동경여자학원은 기독교계 학교로 정신여학교와 인연이 깊었다. 정신의 1회 졸업생이었던 김필례(김마리아 고모)가 국비 유학 중이었으며, 후에 애국부인회 부회장이 된 이해경도 이 학교에 유학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미군 폭격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어 당시 유학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918년 말경 동경유학생 청년독립단에 가담, 황에스터 등과 구국동지가 되었다. 1919년 2·8독립운동에 참가, 활약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2월 17일 김마리아는 귀국하여 3.1혁명을 준비하려고 작정하였다. 그 직전 15일에 황에스터를 만나, 남학생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논의 등을 공유하기로 서로 부탁하였다. 출국 당일 아침에 다시 황에스터가 마리아를 찾아와 서로 격려하기도 하였다. 감시 대상이 된 김마리아는 일본 여인으로 변장하여, 요코하마 여자신학교 학생이자, 정신여학교 후배인 차경신과 동행하였다. 부산에서 대구를 경유, 광주로 가는 그가 대구에서 고모 김순애와 큰고모부 서병호를 만나는 우연은 너무나 기막힌 일이었다. 상해의 신한청년당에서 독립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중요 임무를 띠고 국내에 온 그들이었다. 당시 김순애는 형부 서병호의 중매로 김규식과 혼인한지 2주만의 입국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남편 김규식 등을 파견할 여비를 마련하고, 국내 정세도 파악하여 대표들에게 전하기 위한 길이었다. 그들은 함께 광주로 향했다. 광주에는 김필례(의사 최영욱과 혼인), 김함라(신학자 남궁혁과 혼인) 등 일가가 있어 협조를 부탁하였다. 일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를 고모부 병원에서 수백장

복사하여 건네주고, 다시 상경하여 평양 등지로 다녔다. 나혜석, 장선희 등과 독립운동 자금 마련과 여자독립운동단체를 만들기 위해 지방으로 순회하였던 것이다.

3.1혁명의 발발 소식을 듣고 급거 귀경한 김마리아는 황에스터 등을 만나 여성들의 3.1혁명을 논의하였다. 이화학당을 근거지로. 3월 2일 주일에 정동교회에서 나혜석을 만나 박인덕 방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때 박승일, 신준려, 손정순 등 대부분은 교사와 학생이었다.

김마리아의 첫 인사는, “어제는 조선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날... 남학생들이 크게 운동하고 있으므로 우리 여자들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학생들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황에스터가 적극 지지 화답하여. 4명의 간사를 선정한 뒤 3일 고종의 국장(1월 21일 별세, 3월 1일 국장 예행 연습 학생 동원?) 후 다시 4일에 만나 단체의 조직과 자금 모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일제히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3월 5일 서울의 여학생 만세시위에 동참하였다. 6일에 정신여학교에서 김마리아가 체포돼 필동의 총독부경무총감부(왜성대)에 수감되었다, 이후 차례로 박인덕, 나혜석, 황에스터 종로경찰서... 서대문형무소로. 3.1에 경성여고보 본과 졸업반 최은희가 먼저 왜성대에 와 있어 김마리아와 유치장에서 만났다. 일제의 혹독한 심문과 극심한 고문이 이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여성독립운동가들에게 당시 장로교 선교사 계일은 “한국여성의 용기와 자제력을 높이 평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놀라워하였다. 스코필드 박사 등이 서대문 감옥의 항일여성들을 돌봐주었다. 7월에 출감한 것에는 빌링스부부의 보석금도 작용하였다. 이후 10월에 대한민국의국부인회가 재탄생하는 큰일을 이루었으나, 11월 말 대검거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유감 중의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절대 독립을 위한 독립투쟁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맡기 위한 준비와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던 중 그 해 11월 말 애국부인회 관계자들과 다시 붙잡혔다. 김마리아는 심문을 받으면서 “한국인이 한국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연호는 모른다.”는 등 확고한 자주독립정신을 보였다.

3년형의 판결을 받고 복역 중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서울 성북동 보문암에서 요양하다 변장으로 인천을 탈출, 상해로 망명하였다. 상해에서도 상해애국부인회 간부와 의정원 의원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수학을 계속하기 위해 중국 난징[南京]의 금릉대학에 입학하였다.

1923년 6월 미국으로 가 1924년 9월 파크대학 문학부에서 2년간 수학하였다. 1928년에는 시카고대학 사회학과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받고, 1930년 뉴욕 비블리컬 세미나리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한편, 이곳에서 황에스터·박인덕 등 8명의 옛 동지들을 만나 근화회(槿花會: 재미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 회장으로 추대된 뒤 재미 한국인의 애국정신을 북돋우고 일제의 악랄한 식민정책을 서방 국가에 널리 알렸다.

그 뒤 원산에 있는 마르타 윌슨신학교에서 신학강의만을 한다는 조건으로 1935년 귀국, 이후 여생을 기독교전도사업과 신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순국하였는데, 김마리아의 유언에 따라 시체는 화장하여 대동강에 뿌렸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3) 황에스터(1892~1971)

일명 애덕(愛德)·애시덕(愛施德). 13세 때 평양정진여학교(正進女學校) 3학년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곧 이화학당에 입학해 1910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곧장 평양의 송의여학교 교사로 부임해 4년간 재직 중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당시 수학교사로 짧은 저고리, 트레머리, 가죽 구두, 시계 찬 신여성으로 검소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1913년 동료 교사 김경희(39세 요절)와 교회 친구 안정석 등과 더불어 비밀결사대인 송죽회를 조직하였다. 애국사상이 깊은 학생들을 엄선해 정신교육을 행하고 송죽회의 자회(子會) 설립을 지도하였다. 동시에 군자금을 마련해 중국의 항일독립단체에 송금하였다. 1914년 이화학당 대학과에서 1년 수학, 평양 기흥병원에서 의학공부하다 다시 상경하였으며, 총독부 의학교에서 1년 청강하는 등 공부에도 열심이었다. 1917년 선교사 홀(Hall, R.S.)의 권유로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9월 도쿄여자학원의 김마리아를 만나 같은 학교의 유영준 등과 유학생 친목단체 학흥회를 발족. 현덕신·한소제·송복신·정자영 등이 함께 하여 유학생 간의 친목과 더불어 배일사상 고취와 애국심 고양에 노력하였다.

2.8거사를 앞두고 학우회가 학흥회에 아무런 연락이 없자, 1919년 2월 6일의 동경유학생 회에나가서 “독립을 갈망하는 마음에 남여가 어찌 다르겠느냐, 수레는 한쪽 바퀴만으로는 달리지 못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2월 8일 동경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거행된 2·8독립선언에 참여,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만세를 외쳤다. 주동 학생으로 경찰에 잡혔다가 곧 풀려났다.

의학공부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2년 만에 중퇴하고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여성대

표를 파견할 임무를 띠고 몰래 입국하였다. 여성대표로는 신마실라(申麻實羅)가 선정되었다. 그의 여비 마련을 위해 노파·일본 여인 등으로 변장해 지방 연고지 개성, 황주, 해주, 사리원, 평양 등지를 찾아 모금하였다. 일정하게 성과를 거둔 것은 송죽회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월 28일 서울에 도착하여 먼저 와 있던 김마리아, 나혜석 등과 함께 3.1혁명을 준비, 참가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나혜석 신문조서에 따르면, 3월 2일. 회의에서 황에스터는 첫째 부인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하자, 둘째 남자단체와 연락을 취하자, 셋째 남자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을 때는 여자단체가 이를 대신하여 운동하자 등을 제안하였다. (다른 자료에서는 김마리아 발언이라고도 함).

3·1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가던 3월 19일 체포되어 예심에 회부, 서대문 형무소 수감. 8월 4일 예심면소로 김마리아와 함께 5개월 만에 출옥. 이때도 여성계의 독립운동이 부진한을 개탄하던 김마리아와 더불어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확대 재조직하고 총무직을 담당하였다. 이전의 애국부인회와 다른 점은 조직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으로 그를 위한 결사부를 두었다는 점이다.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 자금 모금과 연락책 등 여성들이 적극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일익을 담당. 이후 여성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같은 애국부인회의 실상이 일본경찰에 탐지되어 애국부인회 임원이 일제히 검거될 때 함께 검거되어 대구경찰서로 넘어갔다.

재판 결과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하면서 동포 죄수들에게 기독교를 전교하는 한편 한글을 가르치며 선도 계몽에 진력하였다. 형기 1년을 남기고 1922년 5월 6일 가출옥한 그는 “감옥이란 곳은 세상의 지옥이니까 누구를 물론하고 육체상 고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정신생활을 하는 동물이니까 나는 그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알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감옥을 나의 피난처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후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동아일보, 1922. 5. 9) 그 후 진로를 예고해 준다.

1923년 이화학당 대학부 3학년에 편입, 1924년 영문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기숙사 사감 겸 강지도 하였다. 밤에는 태화여자관에서 공장 부인들을 위한 무료 야학 강습을 하며 물산장려운동에도 앞장섰다. 늘 명주나 무명 옷을 입고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를 통해 강연 활동, 지방 순회강연을 하며 농촌운동에 관심. 이화의 서양 선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생활에는 적응이 안됨. 1925년 미국으로 유학해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아펜셀러가

제의한 장학금이나 먼저 도미한 오빠의 보조도 거절하고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오빠와 함께 자취 생활을 하는 등 몸에 밴 자립 정신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1929년 1월 귀국한 뒤 감리교 협성여자신학교 교수로 부임, ‘농촌을 살리자’는 구호 아래 농촌여성계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여름방학에는 김노득과 최용신을 데리고 황해도 수안군 두메산골에 들어가 서당식 야학을 3개월 개설. 농촌계몽운동은 45년 광복 때까지 16년간 계속. 1929년 4월 경성여자소비조합 결성, 조합원이었던 박순보를 만나 1930년 4월 혼인 후 1935년 모친 별세 후 남편과 하얼빈으로 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하기도, 일본인 농장에서 고생하는 교포들에게 애국적인 계몽을 하였다. 중일전쟁 발발로 3년만에 귀국. 늦게 자신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을 도와줄 인물과 혼인하였다. 여전히 민족과 국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봉사정신의 삶을 살았다. 1929년 근우회 평양지회, 경성지회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연하였으며, 1930년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광복 후에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해 여성문제 타결에 노력하였다. 6·25중에는 마침 미국에 있었으므로 미국의 12개 주를 순방하면서 구호품을 모아 조국으로 보냈다. 1952년에 귀국해 한미기술학교를 설립한 뒤 전쟁미망인과 고아에 대한 기술교육을 하였다. 1967년 3·1여성동지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에서 활약한 여성동지를 규합하였다. 1963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으며,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2.8 독립운동에는 그밖에도 유명준, 나혜석, 김필례, 노덕신 등 대표적인 다수의 여자유학생들이 있었다.

4) 유명준(1892 - ?)

1892년 평양에서 태어난 유명준은 1910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베이징(北京) 여학교모정서원을 다니면서 안창호 등 민족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1919년 2.8독립선언에 참가.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와 일본적십자병원에서 의학 공부를 하였다. 이 때 민족사회와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 회지 『여자계』를 나혜석 등과 함께 만들기도 하며, 여자유학생들을 이끌었다.

1920년 1월 학흥회 회장으로 여자계 편집 책임. 방학 때는 귀국하여 도쿄여자유학생강연

단, 주로 여성의 의식을 일깨우고 위생관념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며 전국을 순회하였다. 1923년 졸업(한소제, 길정희 등), 일본에서 연구 생활 더 하고 1925년 귀국하였다. 3월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의 부인강연회에서 ‘위생과 경제에 관한 강연’을 비롯하여 김약수, 이여성 등이 도쿄에서 조직한 사상단체인 일월회(一月會)의 발회기념강연에서 ‘무산계급과 교육 문제’라는 강연을 하는 등 기독교계나 사회주의운동에 다 관심을 보였다. 1926년 초부터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의로, 1927년 2월에는 태화진료소 의사를 겸하고 있다가 산부인과병원을 개업하여 여성 진료에 앞장섰다. 1925년 대홍수 때는 독섬, 마포 등지에서 이재민 구호 활동에도 나섰다. 1927년 5월 근우회 창립에 최은희, 황신덕과 함께 ‘세까투리’란 별명, 주역이 되어 1929년까지 중앙집행위원과 정치연구부 상무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경성 여자소비조합 감사장도 감당한 그는 호남의 부호 김종필과 혼인하여 첫딸도 낳고 다복한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였다.

1934년 말에는 안재홍, 이종린, 여균 등과 함께 국내에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5인의 교섭위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를 믿고 응원한 시대에 힘입어 경성여자의학강습소 설립재단을 발족하고 1938년 여자와 어린이 전문 여의사 양성 기관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로 승격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때 길정희, 차미리사, 김활란, 조신성 등 당시 여성운동가와 여의사들 10여명이 발기준비위원으로 함께 하였다.

일제 시기의 그는 신구여성의 조화, 남녀간에도 상호 보완 등 스스로 중도파임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정의를 앞세우고, 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웠다. 특히 한국의 온돌과 김치 등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주택 개량, 식사 개선에도 과학적인 처방과 제안을 쏟아냈다. 젊어서 오히려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 통합과 일치, 온건함 속에 합리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광복 후 격동하는 사회에서 유영준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 조선부녀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장 등을 맡아 치열한 활동에 뛰어들었다. 1946년에는 민주주의민족전선의장단 부의장 및 사회정책연구위원으로 “민족혁명에 있어서 민족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쌀 투쟁 등 민생고 해결에 앞장섰다. 1947년 미군정의 탄압이 거세지자 월북하여, 여전히 암울한 여성과 노동자의 살 길을 찾아보고자 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등 고위직에 있다가 1962년 고령으로 요양소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4. 나오며

도쿄2.8독립선언에 참여한 재일조선여자유학생들은 남녀 동등한 자격으로 독립운동, 사회정치참여 등에 앞장섰다. 이들은 곧 3.1혁명과 임정의 참여 여성으로 성장, 발전하는 확고한 디딤돌이 된 것이다. 남녀 동등한 자격(평등한 국민)을 선언한 것은 어쩌면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모든 운동이 준비한 것처럼 다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분명한 민족의식, 여성의식을 가지고 조선인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독립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의식적인 행위, 주체적인 실천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비교적 일찍 신문명에 눈뜬 개화 집안에서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동경 유학까지 간 (신)여성 지식인들이었다. 차경신, 나혜석, 유영준, 현덕신 등등, 선진 사상을 접하고 일정하게 수용한 이들에게 경제적인 빈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둘째, 이들은 일본에서 학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조선인으로, 또한 여성으로 민족적 사회적 차별을 실감하면서 동경여자친목회(학흥회)를 조직하였다. 여자계를 발간하여 남학생에 맞먹는 여성의 교양, 의식화 운동을 하고 있었다.

셋째, 남학생들의 2.8독립운동의 움직임을 보고 여성도 참여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김마리아, 황에스터 등은 졸업도 개의치 않고 귀국하여, 3.1혁명의 주역으로 헌신하였다. 당시 여학생은 물론 일반대중여성에게 호소하면서 신분여하를 막론한 많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8독립운동에 참여한 유학생 김숙경이 만주 길림성 대한독립여자선언문의 대표가 되어 대한독립여자선언서의 대표인가?(연구과제)

넷째, 3.1혁명 참가 후 투옥, 출감 직후 바로 대한애국부인회 등 기존의 11개 여성단체 조직을 재편. 재조직하여 임정 돕기에 진력하였다. 군자금 모금을 기본으로, 옥중 독립투사 뒷바라지와 가족 돌봄은 물론 결사조직까지 감행하여 여성 스스로 주변적, 부차적 존재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는 민족독립운동이 곧 항일여성운동과 맞물려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초기 항일여성들의 활동은 1920년대 들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1927년 근우회로 여성단체운동의 결실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크게는 김마리아와 황에스터 등 농민여성들의

문명 퇴치와 생활 개선 등에 주력하는 기독교계 여성계몽 및 교육운동과 유영준, 황신덕 등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으로 갈라지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2.8독립운동에 참가한 신여성(지식엘리트) 중심에서 1920년대 대중여성운동으로 확산, 기독교계 계몽운동과 사회주의 해방운동으로 나뉘어 활동한 것이다. 어쨌든 여성들은 2.8에서 이어진 3.1혁명을 기점으로 임정 초기 활동한 여성 30여명을 비롯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독립운동가의 증가와 성장을 이루었으며, 1940년대 광복군과 의용대로 역시 노선을 달리할지라도 1945년 광복 때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현실적으로 실천이 잘 따르지는 못했지만, 임정을 비롯한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국민의 일원, 주체적이고 당당한 남성과 동등한 인간, 여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2.8 독립선언을 통해, 3.1혁명으로, 이후 여성들의 조직화와 의식화가 진전해나간 결과였다.

덧붙인다면 독립신문 1920. 2. 17 송아지 기사 ‘부인과 독립운동’에서 주요한이 논한 바처럼 “상해에 있는 (조선인) 남자들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떠돌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로는 하나도 그런 자가 없다.” 또한 외국에서도 조선여성의 존재감, 우월성을 평가받게 되었다. 3.1혁명 후 인도의 네루도 “한국여성 같은 열성적인 여성이 인도에 왜 없는가?”하였으며, 중국, 일본에서조차... 한국 여성의 활달한 기상, 정의와 평화에 대한 소망 의식 등은 세계 여성을 선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자료

■ 여자계 : 1917년 6월 평양숭의여자중학교 동창회 잡지부에서 창간하였지만, 동창회의 승인을 얻어 잡지인가를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에게 양도하여 친목회의 기관지로 변경하여 발행되었다. 1918년 3월 도쿄에서 발간된 2호는 친목회의 편집부장인 김덕성이 편집 겸 발행인이었으며 이후 황애시덕(황에스티)으로 변경되었다가 4호는 주관자가 여자학흥회로, 편집 발간은 여자유학생회로 변경되었다. 여성을 계몽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해 비록 도쿄에서 발간되었지만, 도쿄 유학 중인 조선인 여학생은 물론 고국과 해외한인사회의 여성들에게도 잡지가 읽혀지길 기대하였다.

■ 김마리아 : 도쿄의 학창시절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고 황에스티, 유영준 등과 1919년 2.8 독립선언에 앞장섰지요. 그 때 우리는 이미 항일독립운동에 남성들만 참여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졸업도 포기한 채 귀국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3.1혁명을 위한 준비였지요. 전국 곳곳을 나누어 돌며 항일만세 시위를 거행하였고, 거기에는 남녀, 신분, 교육의 차이 없이 누구나가 참여하는 가히 혁명적인 과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모이고, 비밀리에 자금도 모우고, 태극기를 제작하고는 거리에 나가 민중들에게 배포하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이같은 만세 혁명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일어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으나 악랄하고 포악한 일제의 무력 앞에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으나 혁명은 헛되지 않았지요. 곧바로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졌으니깐요. 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 수차례 투옥 되고 젓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심한 고문을 받아 후유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도 민족해방투쟁을 멈출 수는 없었지요. 조국광복을 위해 일신을 바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세운 뒤 스스로 졸업을 포기하고, 「독립선언서」 10여 장을 베껴 변장한 일본 옷띠인 오비 속에 숨기고 차경신 등과 2월 15일 부산으로 들어왔다.

귀국 후 대구·광주·서울·황해도 일대에서 독립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여성계에서도 조직적 궤기를 서둘러야 한다며 3·1운동 사전준비운동에 진력하였다. 황해도 봉산에서의 활약을 마치고 3월 5일 서울 모교를 찾아갔다가 일본 형사에게 붙잡혔다. 이 때 모진 고문으로 상악골축농증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였다. 「보안법」 위반 죄목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 해 8월 5일 석방되었다. 석방 후 모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여성항일운동을 복돋우고자 기존의 애국부인회를 바탕으로 하여, 그 해 9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다시 조직하고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 《독립신문》 1920년 2월 17일

작년 2월 동경과 상해로부터 표연히 즐던 고국에 돌아와 몇 명의 여성 애국자는 부산에서 의주까지 목포에서 함흥까지 날아다니며 4천년간 침묵하였던 대한의 1천만 여성에게 조국을 위하여 일어날 때가 박도하였음을 고하였고 일단 대한독립만세 소리 일어나면 그네들은 분연히 깊은 안방의 문을 박차고 태극기를 휘두르고 나섰다. 그네는 옥으로 가고 악형을 당하여 중죄의 선고를 받았다. 그네의 피와 눈물로 대한독립을 부르짖는 소리는 천만의 대한 남자를 분기케 하고 세계에 대하여 대한민족의 의기를 높고 큰 소리로 떨치게 하였다.

그리고 그네들은 점차 자기들의 실력과 지위를 자각하게 되어 우리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오, 독립한 인격이다. 우리들은 여성국민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자각하여 여러가지 결사를 만들었다. 이번에 알려지게 된 애국부인회는 아마 대한부인이 조직한 최초 최대의 정치적 결사일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사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유력하게 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대한부인의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이지마는 김경희(송죽회 초대회장) 같은 인물은 죽었고 김마리아 황에스터 같은 이는 적에게 체포되었으며 지금 상해에 있는 30여명의 부인은 거의 한 덩어리가 되어 간격이 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대개 여학교 출신으로 작년 3월 이래로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수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온 이들이다. 월전 대륙보에 김연실씨의 옥중에서 악형 당하던 고백이 실렸거니와 우리나라에 뜻있는 여자들은 다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봄이 마땅할 것이다. 상해에 있는 그녀는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다. 그녀는 돈을 모아 독립운동에 관한 사진첩 수천부를 발행하여 서양과 한인 방면에 배포하였고 장치는 태극기와 기타 대한의 독립운동을 연상할 만한 기념품을 만들어 세계의 동정하는 인사에게 보낼 것이며 혹은 독립운동사료와 선전재료 수집에 종사원이 되며 혹은 재무부의 수세원이 되어 세금도 거두며 혹은 군무부의 의용병이 되기도 해야 하며 또 적십자회의 간호부가 되며 독립전쟁의 준비를 하는 등 다양한데 이번 우리 독립운동에 자랑할 것이 많은 가운데 아마 우리 여자의 활동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있다. 예컨대 1천만 여성이다 간섭하고 꺾기하여 신대한 건설에 각각 응분의 힘을 내고 그리고 이것은 전혀 신교육을 받은 선각자의 장중에 있는 것이니 선각된 여자들은 크게 자각하고 일각이라도 회속히 인격과 지식의 수양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이 급한 시기에 급하면 급할수록……

■ 《독립신문》 1920년 6월 1일

- 애국부인회 수령 김마리아 여사
- : 적의 악형으로 중병에 걸려 입원 중 -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애국부인회 수령으로 지난 겨울에 체포되어 대구감옥에 입옥 중이던 김마리아는 옥중에서 적의 악형으로 인하여 중병을 얻음으로써 방금 보석하여 대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데 그 병의 원인은 심문을 받을 때에 머리를 많이 맞아 피와 고름을 쏟았고 그 뒤에 다시 거듭 난타를 당하여 뇌의 일부까지 화농(化膿)하여 도저히 회복할 가망이 없고 여사는 혼수상태에 있다 한다.

여사는 방년 29세로 정신여학교, 여자대학(동경) 등의 출신이라. 여사와 같은 옥고를 치른

백신영여사도 병보석 치료중이라고 국내 각신문은 김 여사를 위하여 애석한 뜻을 표하였으며 일본인의 흑형에 대하여 강경한 비난을 표하였다.

여사와 면회한 이의 말에 의하면 여사의 신체는 쇠약이 극에 달하여 차마 보지 못하겠으며 따라서 정신도 전혀 혼미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살길이 없다하여 그 말을 전하는 자마다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재언, 「2·8독립선언과 3·1운동」(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 1988)
- 강재언, 「日本在住朝鮮人情況」(總督府支署, 19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2, 1968)
- 김경일 외, 『한국근대여성 63인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박용옥, 『김마리아』, 흥성사, 2003.
-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편한국사』,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삼일운동(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자료집』 14권, 대중투쟁사 자료집, 여성운동편(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한국여성독립운동사』(3·1여성동지회, 1990)
- 『구원의 횃불』(중앙여자고등학교, 1971)
- 『한국근대 여성 63인의 초상』(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국제심포지엄, 「3.1혁명·대한민국임시정부·항일여성독립운동」 (항일여성독립운동기기념사업회자료집, 2018. 8. 13)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역사속의 여성인물(하)』 1998.

◆ 요주의

- 김마리아 생년이 1891년(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공훈록), 1892년(박용옥)
황에스더 1892년
유영준 1892년(민문백), 1890년?

토론문 I

정현주

(사)역사·여성·미래 공동대표

〈 토론문 I 〉

-2.8 독립선언의 여성사적 의미-

정 현 주

(사)역사·여성·미래 공동대표

재일 조선여자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에 참여와 그 후 3.1운동(혁명)의 영향에 대한 신영숙 선생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2019년이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어서 이에 관한 연구와 행사가 봇물이 터지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또한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2.8독립선언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여성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8독립선언의 여성 참여에 대해서는 김마리아, 황에스더의 활동이 주목되었고, 동경 유학생들이 발행한 잡지 <학지광>과 <여자계>의 담론을 분석한 연구가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영숙 선생님의 연구는 2.8여성독립운동을 시작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신영숙 선생님의 글에서 보완할 점, 약간의 의문점, 제안할 점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경여자유학생들의 조직 학흥회에 조직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일본 동경여자유학생들의 친목단체인데 신영숙 선생님은 1919년 10월 손정규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쓰고 있는데, 박용옥 선생님의 저서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2003, 흥성사)에 의하면 1915년 4월 3일, 조직 시 김필레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136쪽)고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바로 1919년 10월 3.1운동이후에 손정규 회장 선출을 서술하고 있어 혼동이 되었습니다. 뒤에 김마리아가 회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보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19년 1월 이후 동경여자 유학생들이 남학생들과 함께 2.8독립선언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부금 헌납 외에 선언문 작성, 서명 등에 참여는 왜 하지 못했는지 등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2.8독립운동에서 이들 여성의 주된 역할은 ‘밀송과 유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김마리아가 오비 속에 2.8독립선언서를 감추어 국내에 들여왔고 이를 전국에 배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는 자료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2.8독립선언 운동에서 여성참여의 중요한 의미는 오히려 귀국 후의 이들의 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마리아, 황에스터, 유영준 등 중요한 여성인물들이 여성으로서 주체의식을 갖고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김마리아 등이 대한애국부인회 조직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2.8독립선언의 여성참여는 이후 민족주의 계열이건 사회주의 계열이건 구국 여성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2.8 독립선언의 여성운동사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1898년 북촌 여성들이 ‘여권통문’에서 주장에서 교육권, 참정권, 경제활동 참여권을 주장한 지 20년이 지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선구적인 여성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여성으로서 주체의식을 갖고 실천에 나섰다는데서 역사 발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사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사 보급의 가장 효율적인 과제는 역사인물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2.8독립선언에 참여한 여성인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김마리아와 황에스터, 나혜석 등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유영준, 한소제 등 다른 인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한 형편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인물의 사상과 활동내용,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2.8독립선언이 3.1독립선언의 도화선이 되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2.8독립선언을 동경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했다는 점에서 청년 독립선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 중 여자 유학생들이 참여해서 출간했던 <여자계>에서는 ‘여자도 사람’이라는 자각을 드러냈고,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좋은 논문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토 론 문 Ⅱ

신 주 백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토론문 Ⅱ 〉

신 주 백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축박한 시간에도 틀을 갖추며 정리해 주신 발표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은 2.8독립선언까지의 과정에서 여성 유학생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그 역사적 순간에 동참한 사람의 개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토론자는 향후 2.8독립선언과 연관이 있는 여성독립운동의 움직임을 풍부하게 재조명하는 가운데 높은 신뢰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 방향에 관해 짧은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 2.8독립선언에 대한 분석에 좀 더 치중하는 분석문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2.8독립선언의 내용을 당시 세계사조, 일본의 지적 동향과도 연관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하면 선언문의 둘째, 넷째, 결의문의 첫째, 셋째 내용을 풍부하게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제대로 해명하면 1920년 조선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3월 1일 전후로 나온 여러 선언문과의 꼼꼼한 비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8독립선언의 독자적 위치가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요? 가령 언뜻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만, 당시 발표된 선언문 가운데 ‘동양평화’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부각시키며 ‘평화’라는 측면을 강조한 선언문을 토론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의 느낌이 맞는다면, 주도자들은 어떤 정세인식과 지적 흐름 속에서 선언문을 작성했는지 추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 유학한 여성에 관해 분석할 때 다음 사항이 좀 더 고려되면서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1910년대 일본 유학생의 상당수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적 배경(교파, 지역, 선교사, 출신학교 등등)을 갖고

유학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들이 유학을 간 일본의 학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유학을 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력이 귀국 후 국내외에서의 활동과도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여성이 '전문학교'=college에 입학하는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었으니 더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두 번째 언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조선총독부 지배하의 고등교육제도를 기본적으로 숙지한 상태에서 그들의 선택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화학당에는 여러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보통과, 고등과, 유치원 사범과, 중등과, 대학과 등이 있었습니다. 1925년 사립전문학교로 인기받은 후에는 예과1년과 전문교과 3년의 음악과와 4년의 문과가 있었습니다. 사립의 경성여자의학강습소(1928)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1938)가 있었는데 둘의 관계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의식한다면 매우 낮은 집행입니다.

넷째,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보이는 아쉬운 점의 하나는 당시 민족운동의 지형을 제대로 숙지한 상태에서 연구대상 인물의 선택지점을 분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인물이 그런 경우인지는 여기에서 예로 들기는 어렵지만, 발표자가 언급한 세 사람 가운데 김마리아와 황에스터, 유영준의 선택에는 결이 다른 지점이 있지만, 1920년대 시기의 경우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구도로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2.8 독립선언과 장일여성

발행일 2019년 1월 18일

발행처 (사)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www.herstorykorea.org

(0257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402호

02-924-0660

herstory@herstorykorea.org

자료집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8 독립선언과 장밋여성

(사)장밋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